

■ 2022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실험활동지원 심의총평

- 사업유형 : 2022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실험활동지원
- 회의일정 : 5. 31(화) 14:00~18:30 / 예술가의집 위원회의실
- 심의위원 : 고강민, 김경아, 서정림, 이주용, 최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2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실험활동지원 사업은 기존의 기초 공연예술 장르의 결과 중심적 사업 진행의 한계를 벗어나, 창작자들이 우수 공연작품 발굴을 위한 과정 중심의 활동과 시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창작 자체에 집중 가능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것을 사업의 취지로 하고 있으며 우수 공연작품 발굴을 위한 준비 활동을 중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의 자격요건은 최근 3년 이내 신청사업에 해당되는 기초 공연예술 장르(연극, 무용, 전통예술, 음악, 창작뮤지컬)의 활동이 2편 이상 증빙 가능한 단체 및 예술인이며, 기초 공연예술 장르 기반의 공연 기획단계 창작활동의 직접경비(조사, 연구, 워크숍 등)를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활동증빙 서류 등 필수자료가 미비한 10건의 사업은 행정결격 처리되었습니다. 심의기준은 활동목표의 타당성(30%), 활동계획의 충실성(40%), 창작활동의 파급효과(30%)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규모는 사업 당 500만원 정액 지원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연극 148건, 창작뮤지컬 12건, 무용 50건, 음악 72건, 전통예술 44건 등 총 326건의 지원신청이 이루어져 여전히 창작실험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여한 5명의 심의위원들은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심의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숙지하였고, 각 사업의 활동증빙자료와 지원신청서를 온라인 상으로 개인별 사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대면 심의회의를 거쳐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고 평가된 60건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창작물에 대한 완성도와 발전 가능성 및 기획안의 참신성에 대해서도 고려하였으나, 독창적인 실험활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추후 창작물을 완성하기까지의 로드맵에 대한 계획의 구체성이 보이는가와 창작실험이라는 초기 기획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의 취지,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가에 대해 좀 더 중점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올해 지원신청한 사업 중에서는 안타깝게도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사업이 심의 과정에서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의 기획의도 및

세부내용이 예산과 서로 연결되지 못한 점, 파급효과와 예술적 성과 등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이 보여, 창작물에 대한 예술가들의 열정과 진정성이 보이고 소재와 주제의 명확성이 비교적 분명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지 못한 아쉬운 사업도 있었습니다.

다만 올해는 기술과의 융복합 및 타 장르와의 크로스오버 도모,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적인 문제해결 방식 제안과 공연형식의 새로운 학문적 탐구와 실험을 모색하는 경향이 강하게 보였으며, 선정된 사업들은 창작실험활동을 통한 예술적 완성도를 높이고자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고민도 함께 해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술가들도 이미 기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창작물에 대한 충분한 숙고와 심도 깊은 자기 질문 속에서라면, 예술가들에게 던져진 이 '기획'이라는 낯설고 이질적인 단어가 조금 더 친밀하게 다가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정된 예술가에게는 계획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해 주기를 바라며, 미선정된 예술가에게는 심심한 위로와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응원을 전합니다.

- 창작실험활동지원 심의위원 일동